

성 유대절 베드로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d.org)
사무실: 3447-0750~1 팩스: 3447-0752

주 임 신 부 : 주경수(세바스티아노)
1 보좌신부 : 서기원(바오로)
2 보좌신부 : 김세영(파비아노)
전 교 수 녀 : 이정미(마르첼라)
정정순(큰체사)
박선옥(에드워드)

사 목 회 장 : 장병철(율리아노)
연 령 회 장 : ☎ 010-5411-5837

주일미사	토요일 15시(초등부), 토요 저녁미사 : 19시 / 주일 : 6시, 9시, 11시(교중미사), 15시(중고등부), 17시, 19시		
평일미사	월 ~ 토 : 6시 / 화 ~ 금 : 10시 / 화 ~ 금 : 19시	고해성사	주 일 ☞ 미사 전 30분 평 일 ☞ 미사 전 15분
봉 성 체	매월 둘째 목요일 10시 미사 후	유아세례	출수 달 첫째 토요일 17시
관면흔배	매월 둘째 토요일 17시		

소 식

금주의 성경 암송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 2,17)

- ◎ **부모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미사 (6/18(토), 오후 3시)**
* 매달 셋째주 토요일 어린이 미사는 부모님과 함께 미사를 드리는 시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6월 예비신자 모집 안내 (세례일: 12월 10일)**

요 일	시 간	교리 담당	장 소
수요일	저녁 8시	서 바오로 신부	1층 프란치스코홀
주말반	오전 9시 20분	정 큰체사 수녀	지하 성가정방

- ◎ **어르신 방문교리 신청 및 봉사자 모집**
*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환자분들 대상으로 방문 교리를 접수받습니다.
* 신청 및 문의: 원장수녀 또는 김 요안나(010-2303-5081)

- ◎ **유아세례 신청 안내**
* 마감일: 6월 26일(주일)까지
* 세례일: 7월 2일(토), 오후 5시
* 접수 및 문의: 성당 사무실(02-3447-0750)

- ◎ **2016년 청년 여름 캠프**
* 일시: 7월 8일(금)~ 7월 10일(주일) 2박3일
* 장소: 흥천 가람 리조트
* 신청 및 회비: 성당 사무실 / 5만원
* 문의: 오 아우구스티노(010-6438-1275)

- ◎ **군복무자 선물(책)보내기 (6월 19일 신청마감)**
* 새로 군입대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사무실에 비치한 주소록에 장병 주소, 제대 예정일, 부모님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군중후원회장 윤 소피아(010-9968-5634)

- ◎ **울건 반주자 모집 (음악 전공자)**
* 문의: 정 큰체사 수녀, 단장 윤 수산나(010-8799-7027)

◎ **26차 엠마오 '경주 문화여행' (양동마을, 불국사 등)**

- * 일 시: 6월 18일(토) 오전 6시40분, 성당마당
- * 준비물: 신분증, 간식, 간편복장, 회비(5만5천원)
- * 문 의: 전 도미니카 (010-3297-6738)

◎ **가톨릭성가대 단원 모집 (주일9시 미사)**

- * 청년성가대에서 30-40대 성가대로 성격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연령대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 * 기혼자, 부부도 환영
- * 미사 전후 연습 (오전 8시-오후 12시경)
- * 문의: 신 수산나 (010-8863-1305)

◎ **환경생명분과 우리농 직거래 판매**

- * 일시: 6월 11일(토) ~12일(주일)
- * 품목: 유정란, 현미 가래떡, EM비누, 치약, 야채즙, 유기농 토마토(5kg)

◎ **우리 모두 지킵시다.**

- * 포스터와 장식물 등 게시판 외의 무단 부착을 금합니다.
- * 회합실 사용 후 반드시 전등과 에어컨 전원을 꺼주시고, 전기용품의 전원코드를 꼭 콘센트에서 제거하여 절전 및 화재예방에 솔선수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각 단체 모임이 끝난 후 사용하신 회합실 장소를 깨끗이 정리합니다. 특히 음식은 되도록 삼가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바로 다음에 사용할 단체가 불편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당 시설이 파손된 경우나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사무실에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6월 12일(오늘): 본당 시설 보수 2차**
- ◎ **6월 19일(주일):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2차**

모 임

- ◎ 6월 12일(주일): 청년분과
- ◎ 6월 13일(월): 성령 기도회(강사:함옥숙 데레사)
- ◎ 6월 14일(화): 여성 Cu.
- ◎ 6월 15일(수): 여성 구반장 / 성소후원회 / 빈첸시오회
- ◎ 6월 16일(목): 반주단
- ◎ 6월 17일(금): 남성 성체 조배회
- ◎ 6월 18일(토): 초등부 자모회 / 자부회

성가번호 입 당: 202 예물준비: 332, 342 성 체: 172, 152, 198 파 견: 자비의 희년

화 답 송



주님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소서

호랑이와 파이

늦은 봄, 혼자 거실에서 보는 영화의 맛이 눈에 달다. 오래전, '파이 이야기'란 표류기 소설을 영화화한 '라이프 오브 파이'를 보게 되었다.

얼룩말, 하이에나, 오랑우탄, 숨어있던 호랑이, 그리고 파이란 사람이 함께 구명보트에서 표류생활을 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생존에 위기가 닥치자 가장 약한 얼룩말(아픈 불교 신자의 상징)을 하이에나(주방장 상징)가 물어 죽여 먹자고 들고, 그래도 그건 안된다고 말하는 오랑우탄(엄마의 상징)이 대번에 물려 죽었다. 이를 숨어서 본 호랑이(파이의 본능적 힘)가 뛰쳐나와 하이에나를 물어 죽이고 날뛰다가 장막 안(파이란 주인공의 무의식 세계)으로 숨어든다. 파이는 얼룩말의 살점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아 호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면서 체휴를 한다. 영역을 넘어오지 못하게 제한하고 그것을 지키면 고기를 주면서 죽는 날까지 공존할 운명의 짝임을 암시한다.

위기가 닥칠수록 호랑이는 무섭게 활동하고 파이는 줄을 늘여(현실과 별개여서는 안된다는 의미) 뗏목을 만들어 넘어오지 못할 공간을 마련한다. 구원처, 교회로 영성하던 뗏목이 바다 한가운데서 점점 진화한다. 파이는 호랑이가 있는 공간과 뗏목공 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는데 배 안의 창고에서 아버지(신)가 마련해둔 항해지침서(성서)를 꺼내다 뗏목에서 읽으며 마지막 문구에 적힌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경구를 되뇌인다. 아프고 약한 사람부터 잡아먹히는 현실을 본 영적 사람, 파이는 자기 안의 '호랑이'가 힘을 발휘하여 못된 살인자에게 맞섰다. 상황 윤리로 이해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구약 성서에는 거룩한 사람의 위대한 이야기가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잡사의 진실이 담겨있다. 서사를 빌린 영적 메시지다. 구약이 우리 인간의 기억 이야기라면 그 기억은 인식에 의해 저장되고 새롭게 창조되며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놓았다. 아이들이 그리는 대부분의 귀신 그림이 자기 엄마를 상징하듯 저마다 인식의 세계가 달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자기 안의 그러한 잡다한 기억을 정확하기 위해 객관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구약이 저학년 그림이라면 신약은 객관화 화법으로 그려야 하기에 반복 훈련하여 잘 그리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 신약은 현실을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대처방법을 미리 알려주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시해준다. 가장 큰 목적인 평화를 준다는 메시지를 준다. 영생이란 옷 벗듯 벗고 가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기억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가는 곳이라는 것을 암시하기에 화해가 필요하고 그래야 평화를 누린다는 등식을 만들어 놓았다. 한다.

이 영화는 인생이란 바다에 덧댄 표류기였다. 종교적 코드로 읽으면 호랑이와 파이는 카인과 아벨처럼 본능과 이성으로 내재되어 활동하는 한 사람 안의 두 캐릭터였다. 호랑이의 거처는 무의식이며 그 세계는 누구에게나 있는 평생 같이 살 넓은 내적 공간이다. 위기에 가장 힘이 되어주는 단어, '희망'이 빛난다. 호랑이가 물에 오르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밀림으로 들어가듯, 우리네도 상황이 긍정 모드로 바뀌면 성난 호랑이 같은 성질이 어디론가 숨어들고 만다. 그러기를 기다리는 자세, 곧 희망을 가지기를.....

<문화홍보분과 1구역 5반 오정순 알비나>

♣ 환경 개선 봉헌금 (*목표액: 3억원)

환경개선 봉헌금 (6 / 7 현재)	
총 누 계	162,999,000 원

♣ 청담동 성당 성물 봉헌금

아름다운 성전을 위한 성물 봉헌금 (6 / 7 현재)	
총 누 계	86,850,000원 / 351명
* 아름다운 청담동 성전을 위한 성물봉헌을 위해 교우분들께서 10만원씩을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접수 및 문의 : 사무실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 헌 예 목		감사헌금 (6 / 7 현재)				교무금 납부 현황	
교 무 금	18,665,000	윤 소피아	70,000	윤 세실리아	100,000	총 세대수	3,815
주일 봉헌금	13,414,040	한 로사	100,000	박 클라우디아	100,000	총 납부세대	1,131
성소 후원금(12건)	123,000	합 계: 370,000원				지난주 납부세대	12
						지난주 납부율(%)	29.6%